한국영화 현재와 미래 만난다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 상영작 9편 공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의 상영작 9편과 심사위원을 공개했다. 좌측 상단부터 그 여름날의 거짓말, 그녀에게, 되살아나는 목소리, 딸에 대하여, 미망, 부모 바보, 은빛 살구, 지난 여름, 해야 할 일

6월,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2024. 6. 5.~6. 9.)가 올해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의 상영작 9편과 심사위원을 공개했다.

무주산골영화제 '창' 섹션은 우리가 사는 다채로운 세상을 개성적이고 차별화된 시선으로 포착, 한국영화의 지평을 넓힌 동시대 작품들을 엄선하여 상영하는 무주산골영화제 유일한 경쟁부문이다. 그동안 〈한여름의 판타지아〉(장건재/2015년 3회), 〈죄 많은 소녀〉(김의석/2018년 6회), 〈남매의 여름밤〉(윤단비/2020년 8회),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김세인 /2022년 10회), 〈두 사람을 위한 식탁〉(김보람/2023년 11회) 등의 영화들이 수상의 기쁨을 누리며 관객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100편이 넘는 작품들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 선정된 9편은 뛰어난 상상력, 다양한 형식, 개성 있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수작들이다. 특히 9편 중 7편의 작품이 장편 데뷔작으로 구성되어 어느 해보다 신인 감독의 두드러진 활약이 기대된다.

먼저 극영화 부문에는 세심하면서도 힘있는 내러티브가 돋보이는 이상철 감독의 〈그녀에게〉, 이미랑 감독의 〈딸에 대하여〉, 박홍준 감독의 〈해야 할 일〉, 장만민 감독의 〈은빛살구〉가 선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흥미로운 도전과 실험적 시도가 인상적인 손현록 감독의 〈그 여름날의 거짓말〉, 김태양 감독의 〈미망〉, 이종수 감독의 〈부모 바보〉, 최승우 감독의 〈지난 여름〉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작년에 공개된 신작 다큐 중 가장 큰 호평을 받았던 박수남, 박마의 두 모녀 감독의 〈되살아나는 목소리〉가 다큐멘터리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올해 선정된 9편의 '창' 섹션 상영작에 대해 "최근 몇 줄의 시놉시스에 영화 전체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강한 서사 중심 영화들이 많아지는 경향 속에서, 보다 영화 미학적 고민을 담아낸 도전적인 작품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선정된 9편의 작품들은 한국영화의 다채로운 풍경을 독창적으로 담아낸 것은 물론 차별화된 시선, 세심하면서도 대담한 내러티브,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수작들로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한국영화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창' 섹션 시상 내역은 뉴비전상, 감독상, 비컨힐 크리에이티브상, 영화평론가상, 무주관객상 총 5개 부문으로 상금은 총 2천 3백만원이다. 심사위원으로는, 영화 〈기생충〉 등을 제작한 곽신애 대표(前 바른손이엔에이 대표이사, 現 영화사 수목원 대표), 장편데뷔작 〈너와 나〉를 연출한 조현철 감독, 영화 〈차이나타운〉과 넷플릭스 시리즈 〈D.P〉 등을 연출하고 〈약한영웅 Class1〉 크리에이터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준희 감독이 참여하며, 영화평론가상 심사위원은 금동현, 김예솔비, 송형국 평론가가 맡는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어린이 한복잔치 열려

어린이 160여명 대상 상상 한복 체험 · 전통놀이 등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29일 전당 일원에서 '어린이 한복잔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문화재청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한복형 원복 보급사업에 선정된 기관 어린이 1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상상 한복 체험 △우리 서로 큰절하기 △한복놀이터 천연염색 전시 관람 △우리 전통놀이로 놀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도영 원장은 "최근 K-컬처 영향으로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세대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전통문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면서 "이번 한복잔치 행사가 우리 전통문화를 배우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당은 지난해 '우리 윷놀이 세대 전승사업'에 이어 올해 '우리 한복 이어가기 사업'으로 문화재청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장은성 기자

왕궁보석테마대표관광지 '가족소풍'

5월 11~26일 매주 토 · 일요일 다채로운 공연 · 체험 등 진행

'봄바람타고 찾아온 완연한 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 간, 나들이 가고 싶다면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왕궁보석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진행하는 '가족소풍'을 추천한다.

익산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12시 30분~4시 30분에 왕궁보석테마대표관광지 일원에서 가족소풍을 진행한다.

시는 전북 대표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 왕궁보석테마대표관광지 전역에서 익산 9경, 익산, 보석 이라는 3가지 테마와 함께 가족, 연인, 친구가 같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및 체험 활동을 준비했다.

체험부스는 미륵사지 키링, 보석책갈피, 아가페정원 압화부채 등 익산의 대표관광지들을 테마로 하는 무료 체험부스뿐 아니라 '자개 그립톡', '숲을 담은 편백 스프레이' 등 가족이 함께하는 3가지 유료 체험부스도 추가되어 행사의 묘미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소풍'이라는 행사 제목에 어울리게 5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작은가족대회, 왕궁보석테마대표관광지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전! 가족 골든벨', '숨은 보물을 찾아라', '미니게임천국!' 등 소정의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기존에 선보이지 않았던 게임형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 솜사탕 공연', '메가버블쇼', '벌룬 퍼포먼스' 등 온 가족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익산의 관광브랜드 캐릭터인 '마룡'을 이용한 포토존, 친환경 제품, 생활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 뿐 아니라 왕궁보석테마대표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체험 및 공연을 준비했으며, 기존과는 다르게 왕궁보석테마대표관광지 전역을 행사 대상지로 해 가족들이 함께하는 게임형 행사도 운영할 예정이며 전북 대표관광지인 보석 박물관이 한국의 대표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우석대, 전주 국제 실크로드 미술전 개최

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가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전주 청목미술관에서 '2024 전주 국제 실크로드 미술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미술전에는 한국과 중국·미국·이란·스페인 등 5개국 작가 35명의 작품 40점이 전시된다.

공자아카데미 전홍철 원장은 "실크로드(Silkroad)는 동양과 서양, 아시아와 유럽 간 무역을 통해 인류 문명이 처음 교류한 길이며, 실크로드의 역사에서 우리는 인류가 서로 싸우지 않고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서 "이번 5개국 작가들의 실크로드 미술전이 동양과 서양, 한·중 교류의 화합 등에 있어 작은보탬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5월 11일 '소리 판' 완창무대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5월 11일 오후 3시, 예음헌에서 '소리 판' 완창무대의 일환으로 소리꾼 김명남의 박록주제 흥보가 완창무대를 선보인다.

소리꾼 김명남은 강도근, 성창순, 박송희 사사하고,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로, 제18회 임방울국악제에서 판소리 명창부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고수 장보영은 제31회 전주 전국고수대회 대명고수부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인으로 이번 공연에서 김명남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박록주제 흥보가는 송만갑, 김정문, 박록주, 박송희를 잇는 깊은 전통을 가진 작품으로, 섬세한 사설과 기품 있는 소리가 특징이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유머와 해학으로 풀어내며, 소리꾼이 판소리의 다양한 요소를 완벽하게 구사해야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

공연 관람 예약은 전화(063-620-2329),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 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